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2호 【루게 제24870호】 주제 104 (2015)년 4월 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

지난 1년간 2700여개 단체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행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4월 1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신 때로부터 1년이 되었다.

준엄했던 항일혁명전쟁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을 몸소 찾으시어 온 나라에 혁명전통 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난 1년간 전국의 2700여개 단체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행군하였다.

이것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전적지답사는 우리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더 자주 조직하여 모든 군인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잘 알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몸소 백두산에 오르시어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버려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데 대하여 간곡히 이리시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뜻을 받들고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들이 인민군대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주체의 혁명정신을 뜨겁게 이어가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에 앞장섰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흔륙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1월부터 3월사이 수많은 인민군인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았다.

보천보와 대흥단 등 항일의 전구

들에서 인민군인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과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피어린 길을 헤쳐온 투사들의 백발불굴의 투쟁정신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 자양분으로 깊이 간직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한 그들은 이 고향집에서 우리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졌으며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력사가 아로새겨진 태양의 성지와 더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백두의 혈통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였다.

답사행군은 그들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제일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백두의 혼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도 답사과정에서 항일의 칼바람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항일의 20성상 실현을 위하여 백두의 산발들을 주름잡으며 신승거물의 유격전법으로 항일대승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

득하였다.

그들은 오늘도 항일혁명전열들의 맥동이 살아숨쉬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심장에 쏘아박고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라롭게 버리며 사회주의의 수호전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발타는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참가자들은 소중한 혁명전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마음속에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혁명적열의가 고동쳤다.

답사과정에서 그들은 부닥치는 에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끈질긴 투쟁정신으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온 혁명전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조국의 강성민영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 구현해나갈 의지로 심장을 불태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성이 어찌

는 혁명의 붉은기를 대오앞에 휘날리며 해산청년광산, 평양제1백화점, 창광봉사관리국, 평성의학대학, 해산농림대학 등 수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원, 학생들도 답사행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모의 정을 안고 수십년세월 갓하고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 락방구역 충성고급중학교의 교원, 학생들이 올해에도 태양의 성지를 방문하였다.

민족회대의 명절인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광양도와 해산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 김정숙군과 대흥단군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총정 의 대오가 백두대지로 끊이지 않았다.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온 사회주의조국방선의 수호자들로, 대고조 전투장마에서 애국헌신적 투쟁을 바쳐가고있는 일군들, 로동계급과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중공이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학습열

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지난해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6월에는 전국의 모범적인 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7월과 8월에는 전국의 당책임일군들, 농근맹일군들과 초급선진일군들이, 9월에는 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의 군중이 백두전지들을 답사행군하였다.

항일혁명전열들의 피어린 자욱이 그대로 새겨져있는 전구들에서 진행된 시랑송모임과 혁명가요합창경연, 항일빨찌산합창가자들의 회화기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우등불모임 등은 그들에게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투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총정 의 대오가 백두대지로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답사행군기간 일찌기 백두에서 창조된 주체의 혁명정신이 조선의 넋으로, 불굴의 정신력을 뿌리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시려 고 주체 45(1956)년 백두산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어 혁명전통 계승의 새 력사를 펼쳐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

하였다.

2000년대의 첫해에도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의 밀림을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귀중한 재부들이 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헌신이 있어 신군혁명위업은 만만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주체의 항로를 따라 승승장구하여왔음을 그들은 절감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전국의 모범적인 청소년학생들도 답사행군길에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신군혁명천만리길을 끝까지 이어 나갈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과정에 체득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영원히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려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뻐이 들어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뜻깊은 4월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자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밀려선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로동계급이 부닥치는 에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1.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찬 돌격전을 벌이고있다.

합기업소에서

연료생산단위들에서도 증산대책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형분쇄설비들의 가동에 필요한 강물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공무직장과 주강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단조작업을 비롯한 여러 공정에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지난 2월에만도 많은 량의 강물을 자체로 생산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원료, 연료생산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기본생산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10월의 대축전장과 잇닿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높은 생산실적으로 빛내일 마음안고 순회점검을 제때에 하고 판매예정을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분기간 연합기업소적인 세멘트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합기업소에서

연료생산단위들에서도 증산대책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형분쇄설비들의 가동에 필요한 강물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공무직장과 주강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단조작업을 비롯한 여러 공정에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지난 2월에만도 많은 량의 강물을 자체로 생산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원료, 연료생산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기본생산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10월의 대축전장과 잇닿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높은 생산실적으로 빛내일 마음안고 순회점검을 제때에 하고 판매예정을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분기간 연합기업소적인 세멘트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 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신 화력탄보장탄방 탄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거듭거듭 들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과 믿음에 드높은 증산실적으로 보답할 총정의 맹세를 안고 혁명전열들이 고속도굴진운동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회안탄광 차광수청년들격대,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들격대의 청년들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3월에도 좋은 굴진성과를 이룩하였다.

분기간 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전례없는 굴진성과가 이룩되고 남덕탄광, 인포탄광, 회안탄광, 송남청년탄광의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1. 4분기와 3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청년강제단식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10대의 압축기와 배수심기에 달하는 수분바퀴생산을 계속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걸친 생산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그대로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 들었다. 특히 청년강제구역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서 막아서는 에로와 난관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뚫고나가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혁명적으로 실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과 믿음에 드높은 증산실적으로 보답할 총정의 맹세를 안고 혁명전열들이 고속도굴진운동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회안탄광 차광수청년들격대,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들격대의 청년들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3월에도 좋은 굴진성과를 이룩하였다.

분기간 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전례없는 굴진성과가 이룩되고 남덕탄광, 인포탄광, 회안탄광, 송남청년탄광의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었다.

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 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신 화력탄보장탄방 탄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거듭거듭 들려주시었다.

백개의 수분바퀴소재생산은 짧은 기간에 계속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선형을 철적으로 틀어쥐고 청년들격대원들이 고속도굴진운동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회안탄광 차광수청년들격대,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들격대의 청년들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3월에도 좋은 굴진성과를 이룩하였다.

분기간 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전례없는 굴진성과가 이룩되고 남덕탄광, 인포탄광, 회안탄광, 송남청년탄광의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었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애국의 열정을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1. 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넘치게 완수하는 자랑을 펼쳤다.

계획수행기간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한단계 한단계 밀고 내려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신적정사업의 도수를 높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는 혁신적인 일본새를 발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참모부에서는 연단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연료보장을 확고히 하였고 발전설비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생산공정들에 대한 정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해 교대별, 호기별, 작업반별사회주의 증산경쟁을 신속있게 진행하여 비약의 열풍,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증산예비를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서 찾고 그들의 책임성과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에서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에서 1. 4분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관리국아래 모든 피복공장, 옷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뜻깊은 태양집을 맞으며 평양시인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갔다.

관리국아래 평양피복공장, 평양창평양공장, 만경대 피복공장, 평양이웃공장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예비기대조성을 잘하여 생산정확성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모든 전투단위 로동자, 기술자들이 줄기찬 생산돌격전을 벌였다.

일선설비장치의 종업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증기생산량을 부쩍 높여갔다.

탄력직장의 조각공, 운전공들은 생산이 메아리치는 일평균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전기장치의 로동자들이 짧은 기간에 불량계수들을 퇴치하고 전기타미보수장치의 기능공들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전동기들을 보강하여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력갱생장치의 종업원들도 앞선 생산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투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조국해방과 조선노동당창건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전력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드높이 전력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가마포수산업소에서

가마포수산업소에서 3월 수산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중심이장을 차지한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이렇듯없이 기망회수를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높여갔다. 특히 지베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전투현장에서 10여척의 안강망선들로 집중적인 어로근무를 전개하고 화신적정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을 보다 큰 혁신창조로 불러일으켰다.

일정별전투목표가 높이 세워진 가운데 편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었다. 2월말까지 겨울철배수를 끝낸 어로공들은 기세를 올리며 격랑을 맞받아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바다에 진출하였다. 어항을 주시하며 제때에

치게 하시고 총정의 열정을 발휘하였다.

형제산외복공장에서 과학 기술을 틀어쥐고 대중적기술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해내어 적극 받아들인것은 매일 계획을 일별, 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보통강외복공장, 만경대 옷공장을 비롯한 관리국아래 모든 피복공장, 옷공장에서 뜻깊은 태양집을 맞고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자랑을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비약과 질풍을 생산하여 조국에 로써 당의 은정이 더 잘 미

평안남도립업관리국에서

평안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 4분기 통나무생산계획을 119.4%로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관리국의 일군들은 증산투쟁으로 들끓는 각직 광목생산사업소들에 내려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정투적으로 하면서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대흥청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증산투쟁의 열정에 앞장섰다. 이들은 나무베기와 가지따기, 나무모으기를 적극 앞세우면서 통나무제작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1. 4분기 통나무생산계획을 20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가마포수산업소에서 3월 수산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중심이장을 차지한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이렇듯없이 기망회수를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높여갔다. 특히 지베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전투현장에서 10여척의 안강망선들로 집중적인 어로근무를 전개하고 화신적정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을 보다 큰 혁신창조로 불러일으켰다.

일정별전투목표가 높이 세워진 가운데 편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었다. 2월말까지 겨울철배수를 끝낸 어로공들은 기세를 올리며 격랑을 맞받아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바다에 진출하였다. 어항을 주시하며 제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화력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띠고
하며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광명한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의 언덕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상지 만경대로 그리움의 마음이 달
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이 끝없는
민중적공지와 자부속에 터치는 심장의
유희이 있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넓은 백두산과
함께 조선의 심장인 만경대도 있다!
그렇다. 만경대는 심장과도 같이
길일성민족의 찬란가슴마다 주제
의 피를 불어주고 애국의 박동을 더
해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진
합을 모르는 활력을 부여해주었다.
벌써 한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
다. 결코 짧지 않은 역사의 시공간이
었다. 이 기간 우리 조국과 인민이
이룩한 변천은 그야말로 팔복할만 한
것이고 우리의 존엄과 위력은 역사의
상상공간을 올라갔다.

크나큰 공지와 자부속에 넘쳐 이
땅에 굽어쳐온 100여년사를 돌이
켜볼수록 주체의 태양을 받아들여온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만경대

만경대가 천만의 심장에 새겨주는 시
대적의미, 역사의 무게, 인생의 철리
가 얼마나 비상한것인가를 더욱 사
무치게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시원이
일뿐 아니라 세계현대사를 자주와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떠민 강위력
한 추동력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만경대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이시절을 보내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세계 혁명적인민
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서자란 정은 고향이
있고 어느 정치인,명인에게 나
생명의 고고성을 울리던 잊지 못할
고장이 있다.

수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역사에
고향이라는 말은 사회성원 대 개인
에게 인생의 첫 갈피를 정답대 먼
져주며 애뜻한 향수를 실어오는 아
름다운 감정의 대명사라만 불리웠
었다.

만경대고향집의 매력에 말할 때면
사람들은 신당집을 생각한다.

지난날 지주를 비롯한 특권계층의
조상묘를 파주는 산지거들의 집이었

던 신당집은 이제는 그 말자체도 없
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와 더불어
150여년전 만경대일가분들이 첫
이시점을 열어놓은 여기 신당집은
만경대가문의 가난과 고생의 대명
사로 지금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때로
부터 범속한 인간생활의 울타리속
에 머물러있던 고향의 의미가
진면적중, 인류적범위로 새로와
였으며 만경대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으로,
시대와 역사발전의 자주의 길로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의 성지로
되었다.

만경대,
바로 여기서부터 압제의 세상을
불사르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세상상, 새 제도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혁명정신이 태동하였고 망국
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자
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
우는 성스러운 애국의 첫걸음이 떼
여졌으며 지구상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인류사적위업이
시작되었다.

만경대가 가지는 심원한 의미,
만경대의 성스러운 이곳에서
탄생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에 있다.

남달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왜놈과
지주, 자본가들을 미워하신 우리
수령님의 애국정신과 계급의식도
여기서 싹트고 자랐으며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수령님의
자주정신과 시련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혁명정신, 고매한 인
민적품도도 이곳에서 형성되었고
진짜 사상의치는 그들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씨앗도 만경대에서 움
터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에서
키우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
여기서 버티신 강인한 의지와 자주정
신을 백두밀림의 설한봉, 반미대전의
포화속에서 더욱 튼튼히 하시며
20세기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그 정신과 의지로 한층더욱 혁명의
기판차,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기운차게 울리시면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불멸의 업적
을 쌓아올리시었다.

지금도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
서는 《사할가》의 은은한 선율이 울
리고있다.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성
당과 생활에서 순간도 떼어놓을수 없
는 마음의 고향이며 수령의 귀중함과
과 애국의 숭고한 뜻, 혁명승리에 대
한 필승의 신념을 깊이 심어주는

정신적기동임을 새겨주는 뜻깊은 선
물이다.

해방전 자유와 행복에 대한 지향
과 갈망을 시 《산제비》에 소박하게
담아야 했던 어제날 카프의 한
문예인이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에
길일성원수님 탄생하신 곳 여기가 아
름다운 만경대나라라는 노래 《아름
다운 만경대》를 지어 만사람의 심장
을 격동시켰듯이 우리 수령님의 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렬
의 애국자로, 투철한 혁명가로 성장
하였는가를 만경대는 오늘도 전하고
있다.

발후의 고전적명작 《사할가》
의 구절과 소절들이 그대로 혁명의
년대기들을 장식하는 가사와 악보
로 되어 창작된 수많은 만경대의 노
래들이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를
찾아가는 찬란군민의 가슴마다에
21세기행진곡마냥 힘차게 울리고
있다.

지난 세기 만경대의 활 한포기, 나
무 한그루를 두르고 시대를 격동시
키는 무수한 문예작품들을 창조했던
인물들들의 뒤를 이어 오늘에는 그 후
대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물려준
애국의 영원한 주제를 강토우에 꽃
피우며 강성국가의 풍만한 현실을 노
래하고있다.

만경대는 혁명가로서, 애국자로서
한생을 빛나게 살려온 우리 수령님
의 위대한 혁명정신, 애국정신을 따
라배워야 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21세기 첫해에 남조선의 한 인
사는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몇해전에는 많은 남
녘동포들이 4월 15일을 맞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
져있는 수안보를 《만경대로 정하고
이곳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였으
만경대는 태양의 집, 조선의 태양의
나라, 민중은 태양의 꽃밭이라는 노
래로 만경대로 달리는 마음을 피려
하였다.



인민의 마음 오늘도 만경대고향집으로 끝없이 흐른다. 본사기자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길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이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만경봉의 사연깊은 소나무앞에 서있
다. 만경봉을 푸르게 덮은 거목의 소
나무들을 거느리고 성지의 기상인양
유년에도 빛을 뿌리려는듯싶어 누구나
그 소나무앞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
지 못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수령님의 강
성국가건설구상이 소중히 울트고 싹
터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찬란한 현실
로 꽃피어나고있는
것이 아닌가.

소 나무에
걸린 무지개,
조용히 불려
오는 소나기

보내니 만경봉이 소중히 안고있는
그 전설같은 이야기가 의미심장하게
되게된다.

주제 5(1916)년 어느 여름날
만경대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내
린 뒤였다. 검은구름이 가서지고 해
가 뻥뻥 내리비치더니 평평한 무지
개가 만경봉우에 섰는데 한쪽끝
을 만경대고향집지붕우에 두었었다.

제일먼저 그것을 발견하신 어르신
수령님께서 무지개를 잡겠다고
하시며 누가 말리지도 없이 고향집
옆의 들메나무에 오르신것이다. 얼마후
나무에서 내려신 그이께서는 또다시

만경봉으로 다급히 달려가시어 키
를 지른 소나무에 올라 무지개에 손을
뻗치시었다. 그런데 무지개는 그만
만경봉너머로 사라지고말았다. 무지
개를 놓쳐버리신 어르신 수령님의
아쉬움은 그치지않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수령님께서 그
평평한 무지개를 놓쳤다고 할수
있을까.

그이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 지주를
비롯한 착취자들이 없고 인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번영하는 내 조국
에 대한 꿈과 이상이 만경봉무지개
의 형상으로 자리잡고있으셨었다.
그래서 그처럼 어르신 나이에

우리 수령님께서
오르시어 무지
개잡이를 하신
그 소나무는 아
닌지.

그러서 선생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봉무지개에 담긴
신 꿈과 이상이 아름답게 꽃피
고있을 때 무지개와 소나무,
보통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이다. 하지만 무지개잡이를 한 소
나무는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승명하게까지 안겨준다.

일만초목들의 잎새가 가랑잎이 되어
이리저리 흩날리고 강산이 흰눈속에
들어져 짙어지는데 한겨울에도 안
나 부침처럼, 여름처럼 푸르창창한 소
나무의 역센 기상으로 변함없이 나아갈
때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우수 있다는것을 우리 수령님께서
무지개잡이
를 하시며
오르시었던
그 소나무
가 말해주
고있지 않
는가.

푸르창창
높이 솟은
그 소나무
를 바라보
는 나니
10대인
어리신
나이에 강
도 일제를
쳐부시
는 싸움의
길로 결연
히 떠나
고나갈
공상
고초를 다
견디시며
조국의 해
방을 이룩
하시고 인
민의 아름
다운 꿈과
리상이 꽃
피어날
까지 우리
의 강국을
일떠세우

우리 수령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이
눈앞에 어려웠다.
잊지 못할 사연 전하는 그 소나무
앞에서 사람들은 가슴한가득 안아
보리라.

자신과 가정보다 나라와 민족의 생
사존망을 앞에 놓고서 애국, 애족,
애민의 길에 온몸을 강리코 불태우신
우리 수령님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한없이 고귀한 혁명정신, 그 불멸
의 업적과 더불어 무지개와도 같이
활짝 꽃피는 인민의 행복찬 삶을.

아마도 김형직선생님께서 시 《남
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실 때 육중
에서 만나신 병환속에서도 미소속에
바라보신 그 소나무가 어르신

우리 수령님께서
오르시어 무지
개잡이를 하신
그 소나무는 아
닌지.

그러서 선생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봉무지개에 담긴
신 꿈과 이상이 아름답게 꽃피
고있을 때 무지개와 소나무,
보통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이다. 하지만 무지개잡이를 한 소
나무는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승명하게까지 안겨준다.

일만초목들의 잎새가 가랑잎이 되어
이리저리 흩날리고 강산이 흰눈속에
들어져 짙어지는데 한겨울에도 안
나 부침처럼, 여름처럼 푸르창창한 소
나무의 역센 기상으로 변함없이 나아갈
때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우수 있다는것을 우리 수령님께서
무지개잡이
를 하시며
오르시었던
그 소나무
가 말해주
고있지 않
는가.

정녕 남산의 소나무는 우리
수령님과 인연을 맺은 그 무지개빛
이 실려서 그리도 푸르른것이라.
그 무지개를 못 잊어 하느님도 영생
의 20여년세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깃든 곳마다에서 그리
도 자주 전설같은 조화를 펼쳐놓
은것이라.

전설같은 만경봉무지개이야기가
전해진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
렀다.
만경봉에서 회한하게 전변된 평양
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남산의 푸
른 소나무숲과도 같이 수많은 기
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는 내 조국의 모습이 찬란한 무지개의
형상으로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만경봉무지개에 비친 우리 수령님의
꿈과 이상이 그 무지개와도 같이 눈
부신 현실을 펼쳐고있으셨었다.

그렇다. 위인을 모신 인민만이 무
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과 리상
을 가질수 있고 황홀하게 꽃피울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길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오늘도 때
일도 영원히 무궁번영하리라.

만경봉소나무에 걸렸던 황홀한 무
지개처럼 인민의 락원을 꽃피우며,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뜻깊은 사적물이 전하는 이야기

만경대 혁명사적관에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보여주는 혁명사적물
들이 소중히 보존되어있다.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탐구심과
기운차게 울리시면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불멸의 업적
을 쌓아올리시었다.

지금도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
서는 《사할가》의 은은한 선율이 울
리고있다.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성
당과 생활에서 순간도 떼어놓을수 없
는 마음의 고향이며 수령의 귀중함과
과 애국의 숭고한 뜻, 혁명승리에 대
한 필승의 신념을 깊이 심어주는

너무도 어르신 나이에 어른들도 알
지 못하는 축음기리터를 밝혀내신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상은 마
음사람들의 커다란 놀라움을 자아
냈다.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어 조국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철골
창덕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조국과 인민을 알기 위해 정력적인
탐구와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어나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방학이나
일요일이면 자주 만경대에 오시어
고향집에서 밤을 밝히시며 정력적
으로 학습하시었다. 그때 10대 초
엽의 우리 수령님께서 보신 도서를
은 사적에 있는 《고려사》, 잡지 《개
벽》, 《대동기년》, 《동국통감》과 같
이 웅대한 사람들도 리해하기 힘든
책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출판되는 신문, 잡
지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갖가지
도서들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자연
사회에 대한 폭넓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쌓으셨었고 사회정치적견
도를 넓혀나기신 우리 수령님은 그
때 벌써 온 세상을 통째로 안으신 위인
이시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철남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랜 세
월의 자취가 력력한 사립
문을 지나 뜨락에 들어선다.

문이라고 하면 의례히 있는것
으로 여기는 빗장이나 결고도 없
이 사시장처럼 한문으로 열려있는
고향집의 사립문.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가풍을
전하는 귀중한 혁명사적물이다
만 그 어느 박물관이 아니라
여기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
서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일먼저 맞이하는 성지의 사
립문을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
으랴.

열마전 대동강안에 일떠
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
자살림집에서 사는 한 강학
장이 만경대고향집을 찾은적이 있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꿈에도 상상 못했던
최고급살림집에서 살고있는 그
는 그때 누군이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 집 문방 하나보다
도 작아보이는 만경대고향집의
살림방들을 보면서 못내 걱정
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해방전이나 어딘사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초가집의 그 크
지 않은 방에서 만경대일가 열두
구가 사시었는데 자기는 다섯
이 살기에는 너무나 황홀한 최
급주택에서 만복을 누리고있다는

70년전 조국해방의 만세소
리 강산에 넘치던 그 나날에는
금시라도 돌아오실것만 같으
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을 기다
려하임없이 열려있던 사립문
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는 모
두들 나라를 찾고자야 돌아오
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
셨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조
국으로 돌아온것은 나 하나뿐이
었

다고 하신 교사가 눈물을 뜨겁게
적셔준다.
가정과 사회는 사실 집의 문
나를 사이에 두고있다고도 할수
있다.

나라없던 그 세월 많은 사람들
이 집문을 열고 자기와 가정만의
살길을 돌아갈 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결연히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신 우리
수령님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시어 고귀한

한생을 바치신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그 넉넉한
대를 이어 누리는 수명복을
민의 행복찬 모습에 그대로 어
려였다.

만경대고향집의 열려진 사립문
은 정녕 찬따운 애국은 혁명의 길
에 있으며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민족의 만복이 꽃피는것을 진
리로 새겨주는 혁명의 대문인것
이다.

그래서 고향집의 열려진 사립
문은 두팔을 벌려 온 세상을 품어
안다. 오늘도 활짝 열려있는것이
리라.



만경봉의 소나무와 무지개

초가집과 최고급주택

수령님께서 초가집과 인민
이 살고있는 최고급주택,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은 절로 젖어
든다.

만경대고향집에서 조금만 걸
어나면 어제날 오막살이집들이
일떠서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큰 거리를 이룬 최후한 광경을
볼수 있고 집집에서 울리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을수 있
다. 어느 가정에서나 맴시되고
보기 좋은 그릇들마다에 생활의
기쁨을 한껏 담고있지만 여기
고향집부엌에 놓여있는 해방전의
질그릇들은 오늘도 가슴저미는

것이었다.
수령이 탄생한 초가집과 인민
이 살고있는 최고급주택,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은 절로 젖어
든다.

만경대고향집에서 조금만 걸
어나면 어제날 오막살이집들이
일떠서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큰 거리를 이룬 최후한 광경을
볼수 있고 집집에서 울리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을수 있
다. 어느 가정에서나 맴시되고
보기 좋은 그릇들마다에 생활의
기쁨을 한껏 담고있지만 여기
고향집부엌에 놓여있는 해방전의
질그릇들은 오늘도 가슴저미는

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도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숭고한 뜻
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
의 손길에 떠받들려 이 땅에는 세
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
인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
떠서고있다.

사람들이나,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나
는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커갈
수록 부디 잊지 마시라.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 소
중히 자리잡고있던 만경대
초가집을.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 후손만대 길이 전해가자

오 직 한 마 음

1.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
2. 래일의 우리 행복 그 누가 지키랴
로동당이 지키네 수령님이 살피시네
김일성원수님이 우리 앞길 밝히시니
영원히 변치 않을 오직 한마음
3. 세상에 두려운것 하나도 없네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라도 막으리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네 오직 한마음

오늘의 이 행복 그 누가 주셨나

명곡 《오직 한 마음》을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당중앙을 따라 일편단심 한길만을 걸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인민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하는 잊지 못할 한편의 노래가 있다.

주제 57(1968)년에 창작된 가요 《오직 한마음》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모든 영광과 행복의 뿌리와 그 근간을 똑똑히 알게 하여주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온 참다운 충정의 력사, 일편단심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잊을수 없는 추억의 노래이다.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에게 영원한 행복의 권리를 안겨주고 민족의 통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이 지어드린 수많은 송가들 가운데서 가요 《오직 한마음》은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일편단심을 신봉화한 인민의 새로운 성장모습을 은은하고 절절하면서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시음악적형상에 담아 노래한 가요 《오직 한마음》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시대의 기념비적명곡으로 인민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래일의 우리 행복 그 누가 지키랴》... 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대로 시어에 담은 이 노래구절은 평범하면서도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어제와 오늘, 래일의 모든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꽃피워주시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굳건히 지켜주시는 것이다.

노래가 태어난 1960년대에도 같았고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인민이 믿고 의탁하는 어버이품도 하나, 따르는 길도 하나이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는 길외에 편길을 가지 않는, 유일한 삶의 길을 택한 조선인민의 신념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할것이며 변치 않는 일편단심이란 어떤것인가를 우리는 가요 《오직 한마음》을 부르며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살지생활체험을 통하여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을 굳게 믿고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 있고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체득하게 되였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조국안에 또다시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준엄한 해에 태어났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을 계기로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 동해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술한 군함들과 비행기들을 끌어들이고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심히 위협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는 조선인민의 선언이 세계에 메아리쳐 그대 이 땅에서는 뜻밖에도 격렬한 조국수호의 노래가 아니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인민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억센 투지와 불패의 힘을 겁을 먹은 미제침략자들은 감히 전쟁을 도발할수 없었으며 마침내 그해 12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제비들이 범한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노래는 단순히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과 번영에 대한 찬양의 감정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르던 오만한

미제와의 전쟁에서도 이길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감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승리의 꽃다발과도 같이 정히 엮어진 위대한 로동당찬가, 전인민적인 수령칭송의 노래였다.

노래에도 있듯이 김일성원수님이 우리 앞길 밝히시니 영원히 변치 않을 오직 한마음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가면 반드시 행복하고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을 풍부한 생활체험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혁명신념이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은 신봉화되고 망심화되며 생활화될 때 가장 공고하고 변심없는것으로 될수 있다. 자기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정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혁명신념의 최고표현은 다름아닌 오직 한마음이다.

오직,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당중앙을 따라 혁명의 수만리길을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핵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창한 조선로동당원들이 천금같이 귀중히 여기는 좌우명이 있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을 따르는것을 혁명신념으로 간직하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생활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인민의 충정의 높이, 혁명신념의 최고경지를 보여준 노래라는 데 가요 《오직 한마음》이 가지는 영원한 시대적가치가 있는것이다.

조선의 명승 금강산 옥류동의 천연바위에 새겨진 《오직 한마음》의 가사가 만년대대의 글발로 새겨져있다. 몇백년후에도 우리 후대들은 이 바위에 새겨진 노래의 구절구절을 보면서 변형하는 로동당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칭송할것이다.

수령을 받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일편단심, 앞에서도 한마음으로 살고 뒤에서도 한마음으로 살며 보통날에도 한생각, 어려울 때에도 한생각으로 일하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혁명신념의 바탕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어제날에는 가요 《오직 한마음》을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당중앙을 따라 혁명의 준엄한 난곡을 헤쳐온것처럼,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 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한것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부르는 노래들에는년대와 세기가 바뀌어도 사소한 변색이 없는 오직 한마음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천만군민은 《발걸음》,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를 부르며 변신을 모르는 오직 한마음, 불굴의 혁명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당과 수령을 따르는 길에서 망심과 의리를 변함없이 지켜갈 의지, 당과 수령의 령도가 있는 한 이 세상에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드높은 혁명적기개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천만군민모두가 간직해야 할 오늘의 오직 한마음이다.

하늘땅이 바뀌고 역풍이 분대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직하게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폭풍처럼 천만군민의 맹세가 가요 《오직 한마음》과 더불어 4월의 하늘가에 구지높이 메아리친다.

... 세상에 두려운것 하나도 없네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라도 막으리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네 오직 한마음

절세의 위인을 형상한 새 조선의 첫 예술작품들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해방된 조선의 문단이 낳은 걸작중의 걸작이다. 백두산의 천년 이기오른 바위를 베풀듯 삼아, 격과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결기로 마르고 탄한 가슴을 추기며 해방을 맞이한 이 나라의 이름없는 시인이었던 조기천은 온 민족이 숭상하던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잘 알아야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우리가 대를 이어나가야 할 혁명의 피뎠이가 무엇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백두산의 웅변한 자태처럼 용용하고 담대한 기상을 안고있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그토록 유명해질수 있는것은 시인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본질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시를 썼기때문이다.

시인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기적과 사변들로 충만된 영광스러운 항일투쟁과 더불어 백두산의 력사적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새 조선의 위대한 현실속에서 그 누구

보다 민감하게 포착하였다. 백두산정에 올라 이 나라 풍상의 나날을 굽어 보며 시인은 심장으로 들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맞이한 태양, 백두산의 위대한 주인은 다름 아닌 해방조선의 새 아침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백두의 가슴후련한 웨침을...

하기에 시인은 가장 정당한 론리와 진리의 힘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 폭풍파도 같이 거침없이 펜을 내달릴수 있었단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백두의 혁명전통,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높은 문학성과 예술성으로 작품의 사상을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오늘날 혁명적수평판 확립에 이바지하는 국보적명작, 새 조선의 첫 명작들중의 대표작으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연극 《희성》은 주제 35(1946)년에 창작되었다.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순리를 반영한 연극 《희성》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첫 장막희곡이다.

작품은 보천보전투과정을 통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명군술과 위인적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명군술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무한한 희생성,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힘은 적들의 《토벌》과 그 어떤 와해공작도 파탄시키고 보천보에 혁명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게 한 원천이었다.

연극 《희성》은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가 열린 날에 창작을 울리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근거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연극 《희성》은 전설적영웅이며 조국해방의 위대한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전체 조선인민이 심장으로 터진 감정의 환호성이었다.

절세의 위인을 형상한 예술작품들은 소설, 영화, 음악, 미술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거의 모든 종류와 형태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사상정신적재보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 장 반》

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여기서 제일 고생한분이 누구인가고 물으시였다.

부모를 잃고 반생을 지주집머슴으로 잔뼈를 굴려온 농민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심간짜리 지주집머슴을 몽땅 그분에게 드리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문패에 손수 그 이름을 한자한자 쓰시였다.

《박장반》

원래 문패는 집주인의 이름을 쓰는것이므로 지난날 빈민한 농민들의 오막살이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체취와 높은 뜻이 새겨진 그날의 문패는 우리 인민모두가 이 땅의 주인, 나라의 당당한 주인임을 다시금 밝혀주는 사랑의 증표, 영원히 잊을수 없는 주인의 권리를 새겨주는 존엄의 상징인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좋겠다고 몸소 이름까지 지어 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담아 다리의 현판을 써주실것을 간절히 말씀을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어 현직지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손수 다리의 현판을 써주시였다.

《저는 이런 옥력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대인이 쓴 글이올시다.》

이것이 그때 서에 깊은 조제가 되었던 한 로인의 말이다.

진정 인민위원의 숭고한 뜻으로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재부-옥류교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오늘날 뜨겁게 실려와 대동강의 물소리도 그처럼 유정했건 아닌가.

주제 83(1994)년이 다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 김형직사범대학에서는 대학현판제작식이 진행되였다.

《김형직사범대학》이라는 어버이수령님의 활달한 필체로 씌어진 대학현판, 여기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인가.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붓을 드시고 이 불멸의 글발을 남기시였다.

지금도 그러보느라 지인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신 김형직사범대학을 그려보시며 한자, 희망의 노래를 펴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준비해가는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 또 한자 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판에 안을 놓으시고 김형직사범대학의 학생들을 뜨겁게 추억하시며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형직사범대학은 나라의 교육자들을 키우는 원수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김형직사범대학에서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더 잘하여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높이기 위하여 모시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오늘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도 두가 뜨겁게 추억하는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기 며칠전인 7월 5일이었다.

본사기자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연혁사의 갈피에는 주제 35(1946)년 4월 17일이 뚜렷게 새겨져 빛나고있다.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어 로동계급에서 연철하신 잊을수 없는 날인것이다.

그날 무참히 파괴된 흥남비료공장(당시)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게 믿으셨던 이 곳 로동계급이었다.

먼지가 보양제 서린 작업장안에 스스럼없이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인민들이 하루빨리 풍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농사를 잘 지어야 하며 농사를 잘 짓자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였을 때였다.

로동자들이 비료더미위에 격식없이 소박하게 마련해놓은 연락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흥남비료공장은 3천만 우리 인민을 위한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연철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고 때때로 이의운 하였다.

흥남의 비료더미에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연설, 그것은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에서 맡고 있는 로동계급의 사랑과 임무를 더욱 깊이 새겨주며 오늘날 높이 울려 오고있다.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
지난날 교역과 천대속에 살아가던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연혁사의 갈피에는 주제 35(1946)년 4월 17일이 뚜렷게 새겨져 빛나고있다.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어 로동계급에서 연철하신 잊을수 없는 날인것이다.

그날 무참히 파괴된 흥남비료공장(당시)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게 믿으셨던 이 곳 로동계급이었다.

먼지가 보양제 서린 작업장안에 스스럼없이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인민들이 하루빨리 풍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농사를 잘 지어야 하며 농사를 잘 짓자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였을 때였다.

로동자들이 비료더미위에 격식없이 소박하게 마련해놓은 연락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흥남비료공장은 3천만 우리 인민을 위한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연철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온다고 때때로 이의운 하였다.

흥남의 비료더미에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연설, 그것은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에서 맡고 있는 로동계급의 사랑과 임무를 더욱 깊이 새겨주며 오늘날 높이 울려 오고있다.

모두다 로동영웅이 되라!
지난날 교역과 천대속에 살아가던

《옥 류 교》

1950년대말 어느날 동평양 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로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무배가 움직이지 못하여 대동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대동교에 돌이 출근하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인민들의 교통문제를 넘겨하시여 대동강에 새로 다리를 놓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참말로 이곳을 흐르는 대동강물은 글자 그대로 옥류라고 하시며 예로부터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옥류라는 이름을 따서 옥류를 건느는 다리를 《옥류교》라고 하는것이

《원화리의 봄날과 명곡 《봄노래》》

를 찾으실줄 어떻게 알았으랴. 이른새벽 한 농가의 미당가에 조용히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집주인을 깨우려는 일군에게 단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면 얼마나 곤해졌겠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날이 밝겠는데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씻앗다 뿌리고 거품도 나르시며 이곳 농민들이 잘살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소거리반과 품앗이반을 맺고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짓는 원화리 농민들의 모습에서 협동화의 귀중한 맛을 발견하시고 그를 적극 장려할

《원화리의 봄날과 명곡 《봄노래》》

를 찾으실줄 어떻게 알았으랴. 이른새벽 한 농가의 미당가에 조용히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집주인을 깨우려는 일군에게 단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면 얼마나 곤해졌겠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날이 밝겠는데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씻앗다 뿌리고 거품도 나르시며 이곳 농민들이 잘살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소거리반과 품앗이반을 맺고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짓는 원화리 농민들의 모습에서 협동화의 귀중한 맛을 발견하시고 그를 적극 장려할

《원화리의 봄날과 명곡 《봄노래》》

를 찾으실줄 어떻게 알았으랴. 이른새벽 한 농가의 미당가에 조용히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집주인을 깨우려는 일군에게 단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면 얼마나 곤해졌겠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날이 밝겠는데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씻앗다 뿌리고 거품도 나르시며 이곳 농민들이 잘살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소거리반과 품앗이반을 맺고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짓는 원화리 농민들의 모습에서 협동화의 귀중한 맛을 발견하시고 그를 적극 장려할

불멸의 천월에 깃든 사연



평양시교외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날 머슴꾼으로 지저리 천대받던 농민에게 손수 문패까지 써주신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어 이곳을 들려주고있다.

해방된 이듬해 봄 어느날 이곳



1950년대말 어느날 동평양 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로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무배가 움직이지 못하여 대동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대동교에 돌이 출근하는것을 보게 되시였다.

인민들의 교통문제를 넘겨하시여 대동강에 새로 다리를 놓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참말로 이곳을 흐르는 대동강물은 글자 그대로 옥류라고 하시며 예로부터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옥류라는 이름을 따서 옥류를 건느는 다리를 《옥류교》라고 하는것이

주제104(2015)년 새 학년도 시작

각지 학교들에서 개학식 진행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당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이 활짝 꽃피고 주제교육발전의 일대 전환적국면이 펼쳐지고있는 시기에 주제104(2015)년 새 학년도 시작되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각급 학교들에서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각급 학교교원들은 우리 당의 교육을 받들고 전반적 12년제의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뜻깊은 올해에 더 생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새 학년도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해 나갔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을 안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다.

이와 함께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각급 학교들에 더 좋은

의정이 어려웠었다. 전반적 12년제의 의무교육의 해빛같은 교정에 들어서는 신입생들을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들이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개학식들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후대교육사업에 바친신 수령님들의 불변불휴의 대고와 새 세대들을 신군조선의 역설 기동강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진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개학식들이 끝난 다음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조국의 미래로 아름답게 피어나거라

동대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신리소학교를 찾아서

따뜻한 봄기운이 차던지는 4월 1일 아침 우리는 뜻깊은 올해의 개학날을 맞으며 동대원구역 신리소학교를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기러기 나다니는 당의 은정이 깃든 멋진 새 교복을 차려입고 책가방을 달랑이며 초추뿔 학교로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수 있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흥겨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 학교의 야외학습터를 바라보며 신입생들은 저마다 우리 학교가 정말 멋있다고 하며 손뼉을 쳤다.

교사로 들어가는 길량으로 특색있게 세운 대문들은 <조선의 위업을 위하여 배우자!>, <세상이 무렵없어라!>라는 글씨가 새겨져있고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만들어 놓은 상식소개관, 곰땀이학사터, 버섯학사터, 꽃송이를 형상한 책상과 나무잎사귀를 형상한 자그들 등으로 된 훌륭한 학습장소가 꾸려져있었다.

각종 동식물표본과 박제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있으며 도로와 갑문 지어 폭포까지도 실감있게 형성해놓은 자연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곳 교육자들이 새 학년도 교수준비에 얼마나 깊은 사색과 탐구를 바쳐왔는가를 가슴뜨겁게 느꼈수 있었다.

얼마후 개학식이 시작되었다. 축하의 꽃보라색에 물든 지시들이 교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학부모들의 얼굴마디에는 기쁨과 행복의 미소가 출렁였다.

「몇해전에 아들 일영이를 앞세우고 개학날 학교에 왔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딸과 함께 왔습니다. 올해에도 멋진 새 교복과 함께 책가방, 학습용품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것을 다 마련해준 딸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할수 없는 오늘 심정으로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김일철학사의 어머니 김혜영동무의 심정뿐이랴고 하랴.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한없이 고마운 우리 제도에 대한 이 나라 어머니들

모두의 불같은 진정이고 열렬한 사회주의찬가 아니겠는가. 개학식이 끝난 후 신입생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자기 교실들로 향했다.

우리는 학교일군들과 함께 제 1학년 1반 교실에 들렀다.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새 교과서들을 펼쳐보며 신입생들이 첫 수업을 기다리고있었다.

스디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리은향교원이 첫 국어수업의 제목을 칠판에 정성들여 써나갔다. 교원의 신장에 따라 제목을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실에 퍼져서 울려나왔다. 순간 격정에 넘친 학부모들의 흐느낌소리가 귀전에 들렸다.

뜻 깊은 소중환 추억들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는가. 이 땅에서 무료교육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한평생 아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어머니수령님 생각이, 모친으로 난과 시련의 광풍을 뚫고로 날아나서시며 배움의 꽃대문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12년제꽃대문을 열어주시고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변함없이 내세우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정이 끝없는 걱정과 물욕을 떨쳐놓았으리랴.

희망에 대하여 묻는 선생님의 물음에 학생들은 저마다 일어나 대답하였다. 공부를 잘해서 인공지위를 쫓아내고 과학자가 되고 조국을 지키는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며 훌륭한 교원, 의사 등이 되겠다고.

교실마다에서 학생들의 글소리 파랑치 울려나와 뜻깊은 4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학교문을 나서며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웅변했다.

아! 이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고 뜨겁게 축복해주신단 따라서도 해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뜻정히 만들어 조국의 미래로 아름답게 피어나거라!

글 본사기자 김명훈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김정주소학교에서-

아이학습터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장 한애숙, 부교장 박경애동무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지난해말 어느 한 단위 중등원들의 방조를 받으며 꾸러놓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개학식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번듯하게 꾸러놓은 교실들과 정보기술학습실, 영어학습실, 자연실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벽체에 사계절의 독특한 풍경이 생동하게 직판되어있고 그림에

조직원총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월 3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리동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현상수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이 온갖 힘을 기울이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전투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온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 총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배짱을 끝없이 사랑하신 열렬한 마음으로 일군들과 함께 일군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직업동맹사업부문과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면적으로 바싹잡고 이 정면하고 일군들과 동맹원들속에 깊이 침투시켜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그것만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군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 령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 놓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는것을 직맹일군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절대위들의 령도업적단위들이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단위를 전형단위로 정하고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직맹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직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관철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혁명가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월 3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리동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현상수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이 온갖 힘을 기울이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전투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온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 총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배짱을 끝없이 사랑하신 열렬한 마음으로 일군들과 함께 일군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직업동맹사업부문과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면적으로 바싹잡고 이 정면하고 일군들과 동맹원들속에 깊이 침투시켜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그것만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군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 령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 놓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는것을 직맹일군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절대위들의 령도업적단위들이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단위를 전형단위로 정하고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직맹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직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관철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혁명가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북도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북도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3월 30일에 진행되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함흥철 함경북도당위원회 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64(1975)년 3월 함경북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당사업을 더욱 심화 시킬데 대한 문체와 혁명사적지건설에 나서는 문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도안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에 오르시어 혁명사적지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통찰하시고 어머니수령님의 통상을 잘 모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혁명사적지건설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해서와 함흥철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당시)을 돌아보시며 도의 특성에 맞게 사적관을 훌륭히 꾸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교시를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은성군당위원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안의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 40년간 도안의 당사업과 여러 부문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러졌으며 당사업이 개선 강화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정몽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하였다.

금속, 전력, 석탄,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청진, 회맹사, 온성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면모가 일신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조국미래로 아름답게 피어나거라

따뜻한 봄기운이 차던지는 4월 1일 아침 우리는 뜻깊은 올해의 개학날을 맞으며 동대원구역 신리소학교를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기러기 나다니는 당의 은정이 깃든 멋진 새 교복을 차려입고 책가방을 달랑이며 초추뿔 학교로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수 있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흥겨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 학교의 야외학습터를 바라보며 신입생들은 저마다 우리 학교가 정말 멋있다고 하며 손뼉을 쳤다.

교사로 들어가는 길량으로 특색있게 세운 대문들은 <조선의 위업을 위하여 배우자!>, <세상이 무렵없어라!>라는 글씨가 새겨져있고 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만들어 놓은 상식소개관, 곰땀이학사터, 버섯학사터, 꽃송이를 형상한 책상과 나무잎사귀를 형상한 자그들 등으로 된 훌륭한 학습장소가 꾸려져있었다.

아이학습터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장 한애숙, 부교장 박경애동무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지난해말 어느 한 단위 중등원들의 방조를 받으며 꾸러놓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개학식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번듯하게 꾸러놓은 교실들과 정보기술학습실, 영어학습실, 자연실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벽체에 사계절의 독특한 풍경이 생동하게 직판되어있고 그림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7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월 3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리동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현상수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이 온갖 힘을 기울이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전투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온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 총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직맹조직들의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맹조직들은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배짱을 끝없이 사랑하신 열렬한 마음으로 일군들과 함께 일군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직업동맹사업부문과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면적으로 바싹잡고 이 정면하고 일군들과 동맹원들속에 깊이 침투시켜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그것만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군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 령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 놓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는것을 직맹일군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절대위들의 령도업적단위들이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단위를 전형단위로 정하고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직맹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직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관철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혁명가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봉화화학공장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봉화화학공장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3월 31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리부영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만경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 40년간 도안의 당사업과 여러 부문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러졌으며 당사업이 개선 강화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정몽에서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하였다.

금속, 전력, 석탄,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청진, 회맹사, 온성군을 비롯한 시, 군들의 면모가 일신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은 리부영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만경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보고회에서는 창립 40돐을 맞는 봉화화학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내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70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월 3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녀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리동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현상수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이 온갖 힘을 기울이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전투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온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 총화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녀맹조직들의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조직들은 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겠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배짱을 끝없이 사랑하신 열렬한 마음으로 일군들과 함께 일군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사업부문과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면적으로 바싹잡고 이 정면하고 일군들과 동맹원들속에 깊이 침투시켜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그것만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군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 령을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 놓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는것을 녀맹일군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절대위들의 령도업적단위들이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앞장서나가도록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단위를 전형단위로 정하고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녀맹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조직들과 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관철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주체혁명가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팀 2016년 아시아 축구련맹 23살미만 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참가자격 획득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팀이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23살미만 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타이의 방콕에서 진행된 본선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4:1로 이겼으며 31일 마지막경기에서는 타이팀과 0:0으로 비겼다.

결국 우리 나라 남자축구팀은 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2016년 1월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축구련맹 23살미만 선수권대회 본선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뜨락뜨락과 함께 30여년

뜨락뜨락은 농동자취림에 호반되고있다.

그는 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다니면서 짝시간마다 트락트조작자수를 정상화하고있다. 불철이면 수십분은의 교체품을 같이있고 이랑짓기를 하는 속에서도 자그마한 고작이라도 생길새라 작업하기 전과 작업중에서 트락트상태를 간간히 점검하고 수리정비를 잘 하여 언제나 트락트르의 만가동

도산군 북포협동농장 열동무

도산군 북포협동농장 열동무는 지난 30여년동안 남강이와 씨메치기, 이랑짓기와 가을걷이, 낱알운반을 책임적으로 하여 농동원들속에서 성실한 트락트르운전수로 불리우는 농동원최초로 있다.

30여년전 고향땅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갈 희망과 포부를 안고 트락트르운전수가 된 그때부터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높은

